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9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5월 31일(월)

“《상록수》 쓰신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썼다” 심훈 일가 종손 심천보 이사장...보수 각성 촉구한 책으로 화제



심천보 심훈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뒤로 심훈 선생의 사진이 보인다.

가슴이 먹먹했다. 짧긴 했지만 핏줄의 숨결을 더듬으며, 5월 4일 충남 당진의 심훈기념관을 찾았다. 소설 《상록수》를 쓴 심훈(본명 심대섭·1901~1936) 선생을 기리는 이 기념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심훈기념관을 찾은 이유는 심훈선생기념사업회의 심천보 이사장(81)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심 이사장이 2월에 출간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조선뉴스프레스·왼쪽에 책표지)라는 책이 화제여서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의 대오각성과 단결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심 이사장은 “심훈과 심재영 선생이 20세기 초에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농촌계몽운동을 했듯, 나는 한국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득함으로써 21세기 한국을, 특히 젊은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니 심 이사장을 인터뷰하려면 심훈과 심재영 선생을 피해갈 수 없다. 심훈은 심 이사장의 작은 할아버지이고, 심재영(1912~1995)은 심 이사장의 아버지이자 심훈의 장조카로서 《상록수》의 주인공 박동혁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심 이사장의 할아버지인 심우섭(1890~1946)은 심훈의 만형으로 춘원 이광수의 《무정》에 나오는 ‘신문기자 신우선’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상록수》와 《무정》도 다시 읽었다.

심훈기념관 오른쪽에는 심훈 선생이 기거하며 《상록수》를 집필했던 초가집 필경사(筆耕舍)가 있다. ‘필경’이란 ‘붓으로 논과 밭을 일군다’는 뜻이다. 당진시가 관리하는 기념물이다. 심대평 대종회장이 충남지사 재임 때 필경사 앞 공원과 상록수문화관 조성에 기여했다고 한다.

〈심재철 편집위원·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시조 문림랑공 (휘 沈洪孚) 춘향제 봉행



4월 15일 경북 청송 보광산에서 열린 시조 춘향제에는 심동섭 악은공종회장, 심재덕 안동종회장,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 심규섭 오산사북시정공종회 총무, 대중회 이사 등 많은 일가들이 참석했다. 〈2면에 전국 곳곳의 춘향제〉

청심장학회 제3기 장학금 수여식



(재)청심장학회는 4월 17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심대평 이사장(대중회 회장), 심오택 운영위원장, 장학회 이사분들, 제3기 장학생 15명 및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8면에 장학생들의 소감과 포부〉

沈영감 심민섭



인수부윤공종회 춘향제(5월 1일, 용인)



인수부윤공종회(회장 심정구)는 5월1일 6세조 양혜공 춘향제(초헌관 구형, 아헌관 상대, 종헌관 춘식, 대축 종혁, 집례 재구)와 14세조 창주공 춘향제(초헌관 재호, 아헌관 재문, 종헌관 은보, 대축 종혁, 집례 재구), 4일에는 7세조 망세정공 춘향제(초헌관 찬구, 아헌관 상대, 종헌관 우관, 대축 종혁, 집례 재구)를 각각 봉행했다.



전국 춘향제에서 “조상님, 절 받으소서”



2세조 합문지후공(휘 沈淵) 두산정 향사(4월 14일, 합천)

왼쪽부터 함안 재환, 합천종회 근상, 현령공경남종회 진식 총무, 진주이반성정수문중 철보 회장, 대종회 상역 문화이사, 창원사복시정공종회 재열 회장, 고성 인섭, 합천종회 상근, 진주추동문중 정섭 회장, 합천종회 재상 회장, 뒷줄왼쪽측부터 악은공종회 동섭 회장, 진주냉정문중 진섭, 합천종회 종렬, 두산정보존회 성호 부회장, 두산정보존회 대용 감사, 합천종회 상근, 현령공경남종회 한섭 회장, 진주냉정문중 용태 회장, 창원사복시정공종회 흥보 총무이사, 두산정보존회 명규 총무, 합천종회 상근, 이반성정수문중 상봉.

2세조 합문지후공(휘 沈淵) 춘향제 (4월 22일, 익산 남당산)

청수회 전북위원 심영석(59세) 신임유사가 처음으로 준비한 향사로 관섭 위원장을 비롯한 재열, 재중, 문섭 총무, 철음 재무, 성엽, 한철, 향보 전북위원, 흥보 경남위원장, 정행 위원 등 젊은 일가분들이 대거 참석했다.



3세조 청화부원군(휘 沈龍) 춘향제 봉행 (4월 24일, 안성)

제관은 초헌관 상현 도총제공종회 회장, 아헌관 규선 종보 편집장, 종헌관 재훈 청주종회 사무국장, 축관 철유 안성유사였다.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 춘향제(4월 26일, 연천)

제관은 초헌관 종혁 대종회 감사, 아헌관 원섭 신천공과대선종회 이사, 종헌관 재만 사인공종회 재무, 축관 양섭 사인공종회장 등이었다.



4세조 악은공(휘 元符) 5세조 영동정공(휘 天濶) 6세조 석촌공(휘 孝尙) 춘향제 (5월 6일, 청송)

악은공 종손 재대(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 악은공종회 동섭 회장(경남 진주)과 광섭 총무(청송), 능광 대종회부회장(청송) 등 27명이 참석했다.



5세조 도총제공(휘 沈仁鳳) 춘향제 (4월 28일, 청주)

청주종회(회장 심상호), 도총제 공과원주종회(회장 심상현)의 일가분들을 비롯해 청수회 충북위원회 심주훈 회장, 심은영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4) - 심상돈 한국스타키그룹 회장

“CEO 25년... 언제나 즐겁게 일하니 ‘운’ 까지 따르더군요”

심상돈 회장을 보면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심문의 일도, 봉사 활동도 열심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즐겁게 한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샘솟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운’으로 돌린다. 하지만 ‘운’도 실력의 일부이다.



심상돈 회장이 2011년 미국 스타키청각재단 행사에 참석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심상돈 회장이 걸어온 길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해서 큰돈을 만지고 싶었다. 재수생 시절에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집을 박차고 나와 속리산으로 놀러 갔다. 밤늦게 돌아 와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가족이 상주인 그를 찾고 있었다.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몽땅 버리고 3개월간 미친 듯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구영업, 보험영업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손을 댔다. 스무 살에 작은 건물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돈만을 추구하는 삶에 회의가 들면서 건강한 기업의 CEO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 제대 후,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꿈은 실력 있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CEO였다. 친구의 사무실 한켠에서 소규모로 보청기 사업을 시작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처럼 상담했다. 사업 시작 4, 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제대로 된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매장이 12개까지 늘어났다. 스타키 국제 사업부 총책임자의 도움으로 양산시스템까지 갖추면서 회사가 급성장하며 ‘세계 최초’라는 보청기를 속속 출시했다. 그러던 중 미국 스타키가 그에게 한국지사 CEO를 맡긴다는 조건으로 그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좀 더 큰 그림을 위해 손을 잡았고 25년 최장수 CEO의 길은 그렇게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을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스타키그룹은 7개의 자회사(스타키보청기, 복음보청기 등)와 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국내 보청기업계 시장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청각 전문기업이다. 미국 최대 청각 전문기업인 스타키 히어링 테크놀로지(Starkey Hearing Technologies)의 한국지사로 1996년 창업했다. 올해로 창업 25년. ‘세계 최초 초소형 고막형 보청기’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보청기’ ‘세계 최초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등을 출시하면서 신뢰를 얻었고, 보청기 업계 최초로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 어떻게 보청기 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1970년대에 카투스(KATUSA)로 복무하면서 미군부대병원에서 보청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와 희망을 찾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지요. 그 후 35년 이상 보청기 사업 한 분야에만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 미국 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업계 1위까지 차지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

“한국지사 설립 이후 CEO로서 단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스타키그룹은 2년 연속 매출이 하락하면 CEO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비결을 물으면 저는 한결같이 ‘운이 좋았다’고 답합니다. 예전에는 매년 기록을 깨며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운 좋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능한 직원들 덕분이지요.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직원들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 가짐이 운을 불러오는 게 아닐까요?”

-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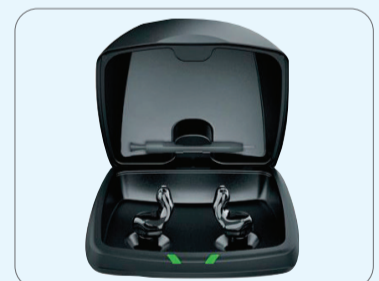
“한국스타키그룹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의 스타키청각재단과 연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리사랑 나누기 봉사단’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청각 검사와 보청기 무상 지원, 난청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난청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난청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직접 ‘대한난청협회’를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봉사활동에는 시간과 열정, 경비가 들 텐데.

“남은 것을 나눠주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일부를 내어주어야만 비로소 봉사의 참뜻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 심문을 위한 봉사도 열심인데요.

“현대는 소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이나 연대감, 희생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심문이, 특히 젊은이들이 가문과 집안의 뿌리를 잊지 않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키가 출시한 최신 보청기(리비오S)



2010년 카투스전우회 초대회장으로서 첫 사열행사에 참석한 심상돈 회장. 심 회장 오른쪽은 월터 엘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9)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나”

호남의 대표적 의병장이었던 22세조 심남일(沈南一) 할아버지(2)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윤보야, 너는 ‘양반(兩班)’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니? 이 말은 고려 때부터 시작한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에서 비롯되었다고 해. 문반은 글공부를 많이 해서 문과 시험을 통과한 선비를 가리키는데 동반(東班)이라고도 했고, 무반은 무예를 익혀 무과(武科) 시험을 통과한 장수를 가리키는데 서반(西班)이라고도 했다. 그리하여 양반이라고 하면 문무(文武) 양쪽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병을 쳐단하여 큰 전과를 올리셨어. 1909년 3월에는 왜병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들으시고 미리 의병을 중요지점에 매복시켜 적군 5명을 쳐단하셨지. 그러자 적군은 영산포(榮山浦)로 달아났다.

남일 할아버지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으로 이웃 고을의 의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셨어. 즉 남일 할아버지가 영산포를 공격하면 이때 강 북쪽(水北)의 전수용(全垂鏞)·이대국(李大局)·오인수(吳仁洙), 산 동쪽(山東)의 안규홍(安圭洪)·김여회(金如會)·유춘신(柳春信) 등이 포위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왜병을 모두 사살하는 작전이었지.

남일 할아버지는 왜병이 다시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전군(全軍)을 다섯 개 부대로 나누어서 동쪽의 대치(大峙), 대항봉(大巷峯), 월임치(月任峙), 덕룡산(德龍山) 꼭대기, 병암치(屏岩峙)에 각기 매복시켜 왜병 70여 명을 사로잡고 수십 명을 사살하셨어. 이때 아군의 희생도 적지 않아 총독 박기춘(朴基春)·좌익장 박여홍(朴汝洪)·우익장 박태환(朴泰煥) 등을 잃으셨단다. 그 후 왜병은 남일 할아버지를 사로잡으려고 4백여 명을 동원해 계속 쳐들어왔어. 남일 할아버지는 이때 또 백여 명을 쳐단하였으나 왜병도 죽음을 무릅쓰고 물러가지 않았어. 그러자 남일 할아버지는 계속 전투를 하다가는 더 많은 희생이 따를까 걱정하여 징을 쳐서 두문(杜門) 북쪽으로 잠시 후퇴를 하셨어. 많은 의병의 목숨을 구하고 다음 전투를 위해 힘을 아끼려던 것이었어.

남일 할아버지의 이러한 신출귀몰한 용병술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생겨났단다.

南一乘龍馬而發出於山外 鉉秀風雲造化飛上空中
남일이 용마를 타고 산 밖으로 솟아오르면
현수는 풍운을 조화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현수는 남일 할아버지의 의동생이자 절친한 동료였던 강무경(姜武景) 투사를 말해. 남일 할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수택(守澤)’이었으나 ‘전남 제일’이라는 뜻을 담아 ‘남일(南一)’로 불리셨듯, 강무경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빼어나다’는 뜻을 담아 현수(鉉秀)로 불리셨거든. 이 노래는 남일 할아버지의 용기

와 우정,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하지만 나라에서는 일제(日帝)의 압력으로 의병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이에 남일 할아버지는 낙심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셨어.

秋風將卒泣相離 古引山前馬去遲
一掃腥塵終有一 草達三載死生期
장졸이 쓸쓸히 눈물로 이별 짓고
고인산(古引山)을 떠남에 말(馬) 조차 더디구나
왜적을 없앨 날 언젠가 있으리니
지난 3년 맹세한 일 부디 잊지 마세

남일 할아버지는 300명에서 시작해 한때 700명에 이른 호남 제일의 의병을 해산한 뒤, 강무경(姜武景)과 함께 능주로 숨어들어 바위굴에 은신하던 중 10월 9일 그만 왜병에게 체포되고 마셨단다. 그리고 12월 15일에 대구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이곳에서 “제 나라를 위한 것도 죄가 될진대 남의 나라를 빼앗은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대장부가 비록 너희에게 사로잡혔지만 쥐 같은 네놈들과는 웬디 다르다 따지고 싶지 않다”고 꾸짖었어. 그리고는 이듬해인 1910년 7월 23일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39세의 아까운 나이로 순국하셨지. 이때 고국산천을 그리는 단심(丹心)으로 마지막 시를 읊으셨어.

文明日月是江山 忽入腥塵喻愛問
未親一時歸地下 千秋化碧血痕斑
해와 달처럼 밝고 밝던 우리 강산이
갑자기 비린 먼지 속에 묻히고 말았네
맑은 하늘 보지 못하고 지하로 가노니
붉은 피 한에 맺혀 푸른 피 되리라

할아버지의 부하이자 동료였던 강무경(姜武景)·권영회(權寧會)·김치홍(金致洪)·이세창(李世昌) 의사들도 그 뒤 차례로 교수형을 받고 모두 순국하셨어.

정부에서는 남일 할아버지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지금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잠들어 계신단다. 이로 보면 우리 남일 할아버지는 문무를 겸한 진정한 선비 의병장이자 참된 애국자임을 알 수 있지 않겠니.



1909년 체포 당시의 남일 할아버지(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남일 할아버지는 진정한 양반이 아닐까해. 남일 할아버지는 의병을 일으킨 만큼 무(武)도 뛰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글을 익혀 문(文)도 갖추셨거든.

남일 할아버지는 의병 출전에 앞서 ‘擧義有感(거의유감)’이라는 시를 읊으셨어. 이 시를 읽어보면 남일 할아버지의 굳은 결의는 물론이고 얼마나 훌륭한 문장력을 갖추셨는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단다.

林下書生振鐵衣 乘風南渡馬如飛
蠻夷若未掃平盡 一死沙場誓不歸
시골 서생이 갑옷을 떨쳐입고
바람 따라 남진하니 말은 나는 듯 달리네
만약 오랑캐를 모두 소탕하지 못하면
맹세코 모래밭에 죽어 돌아오지 않으리

남일 할아버지는 1908년 7월 30일 영암 사촌(靈岩沙村), 8월 1일 나주 반치(羅州盤峙), 9월 20일 장흥 신흥(長興新豐), 10월 9일 해남 성내(海南城內), 10월 27일 능주 돌정(石亭) 등지에서 모두 백여 명의 왜



전남 함평에 있는 남일심수택기념관

청송심문 13정승 열전(13) 만취당 상공(晩翠堂 相公) 좌의정 심통원(沈通源, 1499~1572)

선조 옹립에 공 세우고 심문 최초의 족보를 만들다

율곡 이이의 정계 복귀 도왔으나 척신 세력으로 몰려 불운한 말년



심재석
문학박사 / 대중회 이사

1. 만취당은 이런 분이다

①만취당은 1537년(중종 32년)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1546년(명종 1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했다. 앞서 합격한 별시문과는 중국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과(慶科)였고, 9명을 선발했다. 이 시험의 1등이 심통원, 3등이 심봉원이었다. 이로써 만취당의 4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했는데, 합격 순서는 달원(1517), 연원(1522), 통원·봉원(1537) 순이었다(출생은 연원, 달원, 봉원, 통원 순).

②공은 승지, 대사헌, 한성부 관윤, 공조판서, 예조판서, 의정부 우찬성, 좌찬성, 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 영종추부사 겸 약방 도제조에 이르렀다.

③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였다. 이때 이황은 공에게 소수서원에 대한 서책 등을 요청했고, 공은 이를 조정에 보고해 성사시켰다. 공은 1558년 초 풍기군수 장문보(張文輔)의 장계를 받고 우의정 안현(安玄) 등과 함께 훼손된 안향(安珦, 1243~1306)의 영정을 개수하고 복원하는 것도 주선했다.

④공은 을묘왜변 2년 뒤인 1557년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갔다. 거기서 일본인에게 잡혀있던 중국인 포로를 넘겨주는 등 외교활동을 했다(『明實錄』 嘉靖35.11.15). 공은 이 업무를 마치고 귀국 길에 중국 황제가 왜구를 물리친 조선의 공로자에게 내린 하사품을 도난당해 파직당하는 일이 있었다.

⑤1561년, 강릉의 역자(驛子·역무원) 흥봉량(洪奉良)이 계모를 시해하여 사형당했다. 이 사건으로 강릉대도호부가 강등(降等)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심통원이 강릉부사 등을 파직하고, 강릉의 수령을 보좌하는 유향소 임원을 교체하며, 범인 흥봉량의 집을 헐어 연못을 만들고, 흥봉량의 악행을 거부한 계모를 정표(旌表·선행을 알립)하는 것으로 악을 징계할 수 있다고 건의해 강릉도호부의 강등을 막았다.



만취당 심통원의 신도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42번지에 있다. 1575년(선조 8년)에 세운 이 비는 심통원의 아들인 심진이 글을 짓고, 아들 심방이 전액(篆額)을 썼으며, 손자인 심극명(沈克明)이 글씨를 썼다. 비의 훼손이 심하다.

⑥공은 서인의 초대 당수 심의겸·심충겸 형제,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의 작은 할아버지이다. 이량, 김안로, 윤임, 윤원형, 윤원로 등과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척신 세력이었다.

⑦공은 인순왕후와상의해 명종의 후사로 하성군(선조)을 옹립하는데 큰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청양군 심의겸의 역할도 컸다. 그런데 선조 즉위 후 본격적인 사림(士林)의 시대가 열렸고, 명망 높던 이황과 백인걸이 조정에 나왔다. 그리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노수신(盧守愼) 등 10여 명을 등용한 반면, 만취당은 축출당했다. 바야흐로 척신 세력이 밀려나고 사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4. 청성백 신도비를 찬술하고 심문의 첫 족보 제작

만취당 공은 심문의 증후조인 경기도 연천 소재 청성백 할아버님의 신도비를 찬술했다. 또 인수부윤공 후손으로 유명한 심광언(沈光彦) 전라감사의



순천부사 심통원이 1543년에 건립한 환선정(喚仙亭). 1900년대 초에 촬영한 것이다. 대(臺)와 루(樓)를 겸한 형식이며 지금은 순천시 조곡동 '죽도공공원'으로 이전됐다. 출전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2013).

2. 간략 연보

서기	나이	주요 연보
1537	38	별시문과(장원), 형인 심봉원도 이때 3등으로 합격하여 형제가 동시 합격.
1543	44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정사품)
1546	47	중시(重試)합격, 사간원 대사간
1548	50	경상도 관찰사
1557	60	명(明)에 동지사로 파견되었으나, 귀국 길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 '척왜(斥倭) 공로자'에게 내리는 하사품 도난당해 파직됨.
1560	61	이조판서, 우의정
1564	65	좌의정
1566	67	관작 삭탈되어 시골로 축출됨(전리방귀·田里放歸).
1572	74	· 임신년(1572) 7월 초 8일 안향 동쪽의 별장(東郊別墅)에서 병으로 사망(病卒). · 심문 족보에서는 계묘보(癸卯譜, 1843)에 처음 별세 기사가 보임(壬申七月八日卒).

3. 순천부사 때 환선정(喚仙亭)을 건립하다

1543년 순천부사였던 만취당 공은 지금의 전남 순천시 동천(東川)가에 환선정을 세웠다. 원래는 무예를 연습하는 강무정이었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14년에 부사 유순익(柳舜翼)이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선정 준공 기념 때 초대받은 전라감사 송인수는 "삼신산이 어딘지 모른다 말하지 말게. 환선정 위에 신선들이 모였으니"(제환선정(題喚仙亭)·『규암집』)라고 읊었다. 이후 조선말까지 환선정에 관한 시가 140여 수나 나오면서 환선정은 순천의 명물이 되었다.

주선으로 심문 최초의 족보도 만들었다. 1545년에 만든 『을사보(乙巳譜)』가 그것이나, 실물이 전하지 않아 아쉽다.

5. 율곡과의 인연과 악연

한때 승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율곡 이이가 환속해서 성균관에 들어가는데 공이 도움을 줬다. 그러나 율곡은 나중에 만취당을 '도적'이라며 탄핵했다. "(공은) 1565년 왕의 외척으로서 윤원형 등과 함께 권력을 남용했다는 탄핵을 받고 사직했으나, 1566년 선조가 즉위한 후 율곡 이이 등의 탄핵을 받고 관직을 삭탈 당했다. 율곡은 젊은 시절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된 적이 있다. 그리하여 환속하여 성균관에 들어갈 때 심통원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 은혜를 뒤로 하고 심통원을 탄핵한 것은 그로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것이다."(한영우, 『율곡李珣평전』 29쪽).

6. 만취당 행적에 대한 평가

『명종실록』의 사관 평(評)을 보면, 만취당은 왕실의 인척으로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은 탐욕이 지나쳤다는 것이다. 소윤 윤원형과 친했던 만취당 상공은 인순왕후의 작은 할아버지로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3홍(윤원형·이량·심통원)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젊은 사관의 눈에 비친 만취당 공에 대한 평가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할 대목이 있다면 이 또한 새겨야 할 것이다. < 연재 끝 >

※ 그동안 수고하신 심재석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종회탐방: 경남 고성산북문중종회를 찾아서

명품 재실 '영모재' 완공으로 종원들의 긍지 높아져

옛 상량보, 주춧돌, 주련 등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광장과 주차장도 마련

1. 고성산북문중은?

청송심씨 고성산북문중은 5세조 안효공(安孝公, 휘 온·濶, 1375~1418)의 후손이다. 안효공은 황해도 개령에서 태어나 12세에 진사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부친으로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이시다. 공의 후손인 13세조 휘 응세(應世)는 을사생(1605년)으로 이조참의를 지냈으며, 14세조 공조참의(工曹參議) 심설년(沈設年·1638~1704)과 이조참의(吏曹參議) 심효년(沈孝年·1641~1705) 형제는 16세기 병자호란 때 난세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고성 땅에 정착했는데 그 후손들이 현재 산북, 거락, 시달, 마산 등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산북마을은 자연부락으로 와우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안팎, 중팎, 덕촌으로 이뤄져 있다. 면소재지인 배둔에서 약 7km 떨어진 동북쪽에 자리잡고 있어 창원시 진전면과 닿아 있다. 산북문중에 속한 200여 가구 800여 명의 후손이 영남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2. 2020년 재실 '영모재' 개축

산북마을 어신리에 있는 안효공과 산북문중 재실은 84년 전인 1936년(병자년)에 처음으로 지었다. 수차례 중수하였으나 세월과 함께 낡고 쇠잔해져 후손들이 심심일만 뜻을 모아 2020년(경자년) 5월 재건축을 시작해서 11월 30일 재실 '영모재(永慕齋)'를 준공했다.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이 들었다.



앞줄 왼쪽부터 고성산북문중종회 심재두 회장, 창원사북시정공중회 심재열 회장, 대중회 심상익 문화이사, 심동섭 대중회 부회장 겸 약은공중회 회장(진주), 고성중회 심광보, 뒷줄 왼쪽부터 고성중회 심대현, 창원사북시정공중회 심홍보 총무이사, 고성중회 심인섭, 심상우, 심완보, 심홍보, 현령공파경남중회 심진식 총무 (사진=심재경 고성총무)

영모재는 대지 290평 건평 35평의 목조 건물이다. 기와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령기와를 얹었으며, 특히 용마루는 치미를 쓰고 화반은 이익공, 창호는 창포빛 살문으로 시공했다. 경첩도 황동을 사용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기둥도 하부 40cm는 돌기둥을 사용해 기둥이 썩는 것을 예방했다. 대문은 높이 6.5m의 소슬삼문 이어서 위엄이 있다. 담장도 고궁돌담장으로 기와를 이어 운치를 더했다. 돌계단도 판석이 아니라 익산 황등석 통석을 사용해 매우 튼튼하다.



관세음보살 모습의 대들보 용이

재실 내부는 흥송으로 위패장을 짜고 향나무 위패 320여 개를 만들어 조상님을 모시고 있다. 대들보의 용이가 신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어 후손들은 모두 길상(吉祥)으로 생각

하며 앞으로 문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 옛 재실의 상량보, 주춧돌, 주련 등을 보존해 후손들의 교육자료로 쓰고 있다. 특히 상량보와 주련에 대한 해석을 액자에 담아 전시함으로써 재실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조상님들의 뜻도 새기도록 하고 있다. 재실 입구에 건립비를 세웠는데 위엄있는 해태상 2좌가 지키고 있다.

소슬삼문의 문호인 '응설문(應設門)'은 13세조 휘 응

세(應世)의 '應'과 14세조 공조참의 휘 설년(設年)의 '設'을 합하여 붙인 것이다. 삼문 좌측에는 심설년 할아버지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유허비 주변에는 50여 평의 화단을 조성했고, 그 앞에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50여 평의 넓은 광장도 만들었다. 재실 입구에는 60여 평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는 100여 평의 공영주차장도 있어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대들보와 주련 해석

3. 명품 재실 완공으로 승조돈묵 활동 확대

매년 10월 둘째 일요일에 시제(時祭)를 올리는데 창원, 마산, 부산 등지의 종원들까지 모여 승조돈묵을 실천하고 있다. 재실 재건축을 계기로 더 많은 종원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후손들의 뿌리교육에도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산북중종 역대 회장은 초대 심상우, 2대 심재두, 3~4대 심상득 일가를 거쳐 현재는 5대 심재두 회장이 재실 재건축을 주관하는 등 종원들의 단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실 재건축에는 26세 심광보 산북중종 이사(취바이오시스 대표)의 기여가 컸다. 그는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했으며, 자재 조달과 인부 지휘, 돌과 나무 선별, 명품 고령기과구입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산북문중은 임원과 종원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명품 재실을 완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상 숭모와 종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문중이 더욱 번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정리=산북문중 심광보)



개축 재실대문채

일가기업탐방 - 인천의 종합물류기업 주식회사 선광

심문의 대표기업 선광, '기업은 인격체' 라는 믿음으로 성장

창립 100년 바라보며 해외 진출 준비... 3대 걸쳐 대종회 발전 큰 공



인천신항에 새로 만든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선광은 인천 중구에 본사를 두고 인천신항, 군산, 평택 등 서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양곡 사일로(Silo),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하역과 연계된 물류사업 등을 하는 종합 물류기업이다.

1948년 창업주인 고(故) 심명구 회장이 조선(朝鮮)과 광복(光復)에서 한자씩 따서 사명(社名)을 짓고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73년이 됐다. 현재는 명구 회장의 장남인 장식 회장과 차남인 충식 부회장이 경영하고 있고, 명구 회장의 동생인 정구 씨가 명예회장(4선의원)으로 있다. 정구 명예회장은 서울 상대를 졸업 후 선광에 입사해 현재까지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선광은 수출입 물류의 중심인 항만(부두)에서 하역사업을 크게 일으켜 70년대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공헌했다. 80년대에는 양곡 사일로 사업에 진출하여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간 양곡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일반화물의 컨테이너화에 따라 인천남항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했으며, 2015년에는 인천신항으로 확장 이전하여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선광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과 문화예술 지원 (누계 학생수 6700명,

누계 실적 약 102억원), 사회적공헌 활동 (CSR)에도 진력해 지역 시민과 소통하는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업 73주년을 맞아 장식 회장을 만나봤다.

-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선광이 취급하는 양곡 사일로의 주력 품목은 사료용 곡물이다. 팬데믹 여파로 외식은 줄어든 반면 가계의 육류소비가 늘면서 사료곡물 수요가 안정세를 유지해 다행히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컨테이너터미널도 지난해 초기에는 물량이 급감했으나 인천항을 많이 이용하는 중국의 대형공장이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100만 TEU(1TEU는 20ft 컨테이너 한 개)를 처리했다.”

- 앞으로의 비전은.

“오랜 기간 동북아 물류허브인 인천항을 대표하는 물류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타 항만 1~2곳으로의 신규 사업 및 해외로 진출해 국제적 항만물류 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항도 물류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다하고자 한다.”

선광은 대종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식 회장의 조부인 종의 어른은 평생 애정과 열정으로 종사(宗事)를 돌보았으며, 이를 보고 자란 효자 명구 회장도 열 일 제쳐놓고 대종회를 위해 노력했다. 명구 회장은 30여 년간 최장수 대종회장으로 일하면서 족보 간행, 파평윤씨 문중과 400년간 이어온 산송(山訟) 마무리, 6세조 양해공(휘 石雋)을 모신 임야의 삼성 강제수용 저지, 13대에 걸친 파주 선영의 재정비, 산재한 종중 재산보존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일가와 그 자식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있다.



심대평 대종회장(오른쪽)이 심장식 선광 회장에게 창립 73주년 기념품(디지털시계)을 전달하고 있다.

심장식 회장이 걸어온 길

1953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취득했다. 미국 은행에서 근무 경험이 있고, 선광 리비아 해외사업부에서 9년간 근무하며 전문경영인 능력을 쌓았다. 선광 양곡터미널사업을 추진하고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인수해 화인파트너스를 창업했다.

장식 회장은 “조부와 선친께서 애정을 갖고 대종회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며 심문의 자긍심을 느꼈고 종회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대종회가 더욱 발전하려면 ‘심문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대종회와 지파종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종회와 일가들이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재=심재성 편집위원(전 광명시 경제문화국장)〉



앞줄 왼쪽부터 심재성 중보 편집위원, EASY수목원 심정환 대표, 심장식 선광 회장, 심정구 선광 명예회장, 심대평 대종회장, 심상의 대종회 문화이사, 뒷줄 왼쪽부터 동화E&C 심관식 대표, 심충식 선광 대표, EASY솔루션 심현용 대표, 심중식 이사



인천남항에 있는 선광 본사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군산항에 있는 선광 싸일로



평택항에 있는 선광 자동차부두

제3기 장학생들의 소감과 포부

“심문의 무한 신뢰에 동량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4월 17일에 있었던 제3기 청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받은 것 이상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보답



대전 명석고교
심명우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좋거나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생으로서 선발해 주신 것은 중학 3년과 고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과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저의 목표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받은 것 이상으로 베푸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청심장학회 제3기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심장학회 설립 취지에 부응해 앞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심문을 빛내는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심지나

제가 다른 성씨를 가진 친구에게 청송 심씨 대종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니 친구는 그런 대종회도 있느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될 수 있어 뿌듯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청송 심씨의 신뢰와 응원을 받은 것이 더 자랑스롭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병들과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명문의과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제 목표를 들어주시고 믿어 주신 청송 심씨 대종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표를 함께 나누고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돌려주겠습니다. '괴할 수 없으면 즐기'는 제 좌우명을 길라잡이 삼아 비록 힘들겠지만 행복한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지니어가 되어 심문에 영광을



서울대 박사과정
심재봉

장학금 수여식에서 청송 심씨를 빛내고 있는 여러 이사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청송 심씨의 자랑인 여러 학우를 직접 만남으로써 청송 심씨 가문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수여식 당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주옥같은 말씀을 들려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남들에 뒤지지 않는 인재가 되어 앞으로 청송 심씨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기 청심장학생이 되면서 같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심소은 님과 교내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가고 있으며, 서로가 모던 분야를 공유하면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소은 님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만큼 앞으로 청송 심씨를 대표하는 엔지니어이자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고 자신감을 준 기쁜 소식



연세대 국제통상학과
심현

할아버지로부터 청송 심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란 저로서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 방향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송 심씨 장학생으로 선발됨으로써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차게 앞으로 전진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자란 덕분에 외국어 실력과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을 또 하나의 도약대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자 합니다. 장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도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가장 기뻐하셔서 저 역시 행복했고 힘든 시기에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심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세계적인 플루트 캠프에 참가



미 파이오니아
헤리티지 중학교
2학년 심연재

초등학교 때 방과 후 교실에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재능을 알게 되었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연주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미국 콩쿠르 중 가장 큰 2개의 대회 중 하나인 전미음악교사협회(MTNA) 주최 콩쿠르에서 미국 전체 1등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메이저대회인 미국플루트협회(NFA) 주최 대회에서도 마지막 3인에 들어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받은 장학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루티스트인 제임스 갤웨이(James Galway) 경(卿)이 운영하는 스위스 캠프에 참여합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플루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여름캠프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저의 존재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심장학생이 된 것은 영광이자 자랑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훌륭한 플루티스트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심문이 자랑이었던 할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심소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다녀오고 나서 뿌듯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장학생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장학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심문의 일원으로 성장해 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늘 제 이름을 한문으로 써보게 하시고, 심가의 유서 깊은 역사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두꺼운 족보를 곁에 두시고 찾아볼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심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셨던 할아버지께, 늦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장학생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도 영광이지만,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주셨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벅칩니다.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국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ODA(공적개발원조) 전문가로 힘차게 성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과학과 IT를 짊어질 인재로



호주연구원
심창범

저의 연구 활동을 위해 도움 주신 청심장학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데이터 과학자로서 의료, 교통, 범죄 등 대국민 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야와의 기술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IT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바지하고, 우리나라의 학계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받은 은덕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변도 돌볼 줄 아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머지 장학생들의 소감과 포부는 다음호에 실습니다)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스포츠, 예술, 건설, 공직 등 각 분야에서 혁혁한 활동

남자마라톤 심종섭
도쿄올림픽 출전 확정(4월 4일)



대구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
서울대 심상용 교수(3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
신임회장 심상돈(2월 22일)



'더스트맨' 으로 영화 데뷔
전남 곡성 심달기(3월 30일)



동림종건 심승무(왼쪽),
경남 자랑스러운 건설인상(4월 6일)



창원시의원 심영석(오른쪽),
자랑스러운 육군3사인상(4월 9일)



심언택 용인문화원장 취임
(4월 21일)



심용섭 전 고양오리온스 단장(왼쪽) 친교 방문(4월 6일)



심덕섭 노을대교건설특별위원장 축하 방문(고창, 4월 22일)



앞줄 왼쪽부터 심가희 아트네트웍스(주) 대표, 심수영 전북중회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규 선무공신중회장(고창), 심가영 아트네트웍스(주) 대표, 뒷줄 좌측부터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재월 전 천안상록회관 본부장, 심길수 고창군통장협의회 회장, 용경남(심덕섭 차관 부인), 심덕섭 위원장, 심재업 사장(고창),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심문섭 전북 총무

상반기 수시인사

〈삼성 서울병원〉(4월 1일자)
▲마취통증의학과장 · 수술실장 심우석 ▲교육인재개발실 임상시물레이션 담당 실차장 심민섭
〈부산상공회의소〉(4월 8일자)

▲경제정책본부장 심재운
〈산림청〉(4월 14일자)
◇승진(서기관) ▲산림복지정책과 심양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4월 15일자)
▲재정지원부장 심규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5월 1일자)
◇〈보직〉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심금섭

〈법무부〉(5월 1일자)
◇신규 임용 ▲성남지청 심지원

지파총회 소식 - 이런 일 저런 일

종보 편집위원회의 “독자 유인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임피총회 2021년 정기총회 (4월 1일, 군산시 임피면 경모재)



종보편집위원회가 4월 23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종보 발행인인 심대평 대종회 회장, 편집장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를 비롯해 편집위원인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재한 전남대 석좌교수,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종래 LH 본부장, 심재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심재성 전 광명시 경제문화국장, 심재석 문학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규선 편집장이 종보 편집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고, 편집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해 다양한 종보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가운데) 축하 방문(3월 2일)



광주광역시 송암총회 간담회 (3월 26일, 종회 사무실)



청주총회 정기총회 (5월14일 청주총회회관)

2세조 합문지후공 (휘 沈淵) 신임유사 심영석(4월 1일)



7세조 이경공종회 총무이사 심춘섭 (4월 1일)



9세조 수찬공 종회 총무이사 심재성 (4월 1일)



특별기고

“기후변화는 발등의 불...심문부터 관심을”



심재한 종보 편집위원 (전남대 석좌교수)

싱그러운 오월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부터 내려오는 계절의 정취가 변하면서 봄에는 유난히 심한 알레르기를 겪었고 얼마 전에는 이상한과가 물려와 농작물의 화분매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매화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피우던

꽃들도 거의 동시에 개화해 오월의 싱그러움을 느끼기도 전에 여름에 들어선 느낌이다.

화학자인 나는 평소 ‘녹색화학’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실험실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할 때도 에너지

는 적게 쓰고 폐용매나 폐기물도 적게 발생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회의에 40 개국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고,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앞다퉀 기존 목표치를 웃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깝고도 큰 위기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지만 지금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은 얼마 후엔 지구에 없을 이들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세대가 다들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삶의 질과 경제 발전을 넘어 인류의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

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논어에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라는 구절이 있다. 잘못이 있을 때 이를 고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본디 허물이 있는 존재이며, 그 허물은 본인이 아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허물 고치기를 꺼리는 인간이 바로 소인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자 주변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

우리 일가들부터 군자와 대인의 모습으로 환경과 기후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생태적 사고가 현대판 예(禮)가 아니겠는가. 아니, 원래 예란 인간과 천지(天地)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심천보 심훈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인터뷰

“《상록수》 모델인 아버지, 바보처럼 사셨지만 이제는 이해”

【1면에서 이어집니다】

《상록수》는 한일병합 후 사반세기가 지난 1935년에 발표됐다.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공모 당선작으로 5개월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됐다. 이광수의 《흙》(1932), 김유정의 《봄봄》(1935), 박화성의 《고향없는 사람들》(1936)과 함께 그 시기를 대표하는 농민문학이다. 상록수는 소설인 동시에 충청남도 당진에 정착한 청송 심씨 가족의 스토리이기도 하다.

심훈은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간 수감됐다가 퇴학당한다. 그 후 중국에서 문학과 영화를 공부하고 귀국 후 화가 이승만(1903~1975)과 함께 ‘극문화’를 조직했다. 1924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1928년 조선일보 기자, 1931년 만형 심우섭의 도움으로 경성방송국 문예담당이 된다. 그러나 사상 문제로 곧 쫓겨나고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당진으로 내려가 집필에 전념한다.

심우섭은 휘문고보 1회 졸업생이다. 조선총독부의 총무과, 문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다. 경성방송국 한국어 방송과장을 지냈으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이사로도 근무했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친일논쟁이 일기도 했다.

심재영은 경성농업학교(서울시립대 전신)를 졸업했다. 부친과 함께 서울 흑석동에서 살다가 1930년 브나로드(민중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 운동을 위해 당진 부곡리로 내려와 문맹퇴치와 농촌 계몽운동을 벌인다. 모든 사람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던 때 거꾸로 벽촌으로 내려왔으니 스스로 힘든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심 이사장에게 먼저 “상록수의 주인공인 박동혁의 모델이라는 부친 심재영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좇지 않고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후세에 빛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종종 상록수에 나오는 ‘불요와 불요회(不要怕 不要悔)’를 입에 올리곤 하셨죠. 두려워 말고 후회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안효공파로 조선 시대 당쟁 시작의 중심에 섰던 심의겸의 형인 심인겸의 자손입니다. 제가 9대 종손입니다. 젊었을 적 아버지께서 귀향하는 바람에 저는 서울에서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 이사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미국 피츠버그대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살다가 2011년 귀국했다. 본인은 이과보다는 심훈 할아버지를 닮아 문과 취향이라고 했다. 이번에 낸 책도 ‘문과 취향’의 결과인지 모른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울고 동기 중에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있습니다. 귀국 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이념적으로 좌우 양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진보가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수는 정신 못 차리고 갈라져서 진보의 정치 쇼에 해맷니다. 해방 후에 나타났던 이념 갈등과 사회 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좌파가 다시 집권해 소득주도 성장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의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시각은 45년 간의 미국 생활과 그곳에서 길러진 국제 감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

- 독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북리뷰를 잘 써줬고, 유튜브인 공병호TV, 김문수TV에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일가들이 이 책을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세 달 만에 4000권이 팔렸다면 반응이 뜨겁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많이 했어요. 전국의 대학 총장과 대기업 총수에게도 일일이 보냈습니다. 제 논지에 동의한다면 대학생과 젊은 직원에게 소개하겠죠.”

- 미국에서 45년 거주하면서 장남 규천은 하버드대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차남 규동은 스탠포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는 등 아메리칸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왜 귀국을 결심했나요.

“제 어머니는 미국 하와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전까지 농촌계몽 운동을 하셨는데 해방 후 무고하게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되어 2년 가까이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번 경찰이 들이닥쳐 어머니를 끌고가서 아버지의 피신처를 묻고 어머니 손목을 묶어 잡아갔습니다. 풀려나서는 정신병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치매로 고생을 했습니다. 계모인 김옥순이란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50년간 상록수 터전을 지켰습니다. 부곡리 상당수가 저희 땅이었죠. 지금은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해서 만평 정도가 남았습니



심천보 이사장과 부인 이경애 여사. 옆의 석비에 새겨진 ‘애항’은 심훈 선생이 지어 장조카 심재영(심 이사장 아버지)에게 준 것으로 야학에서 불렀다.

다. 계모가 장남인 제가 들어오기를 바랐습니다. 2011년에 아내에게 귀국하자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종손이니 당연히 들어와야죠.”

- 이곳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내(이화여대 약대 졸업)도 만족하고 저도 이곳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번영을 지속하기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일으킨 나라입니까. 젊었을 적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을 이해합니다. 작은 할아버지인 심훈 선생은 36세 젊은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잖습니까.”

- 가수 양희은이 부른 ‘상록수’는 좌파가 자주 부르는 노래이고, 이 노래에는 심훈 선생의 시 제목인 ‘그날이 오면’이라는 가사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날’은 이 땅의 민주화 세력이 그리는 이상향이시죠.

이 질문에 심 이사장은 “몰랐다”며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양희은과 함께 부르는 ‘저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라는 ‘상록수’ 노래를 유튜브로 들려주자)

“좋은데요. ‘상록수’가 좌도 우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 새삼 뿌듯합니다.”



심훈 선생이 《상록수》를 집필했던 ‘필경사(筆耕畝)’

심천보 이사장의 인터뷰를 계기로 심훈 선생의 《상록수》에 얽힌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첫회는 이 기사이며, 2회(7월)는 심훈기념관과 당진 부곡리를 소개하고, 3회(9월)는 21세기 종합예술가 모델인 심훈 선생의 계몽사상과 근대화 기여에 대한 심문 일가의 대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공지사항

公 告

2021年度 安孝公(諱 溫)派宗會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 1. 日 時: 2021. 6. 14(월) 11:00
- 2. 場 所: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401번지 (안효공 묘전 및 재실)
- 3. 主要內容
 - 가. 2019, 2020年度 결산(안) 승인의 건
 - 나. 2019, 2020年度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다. 2020, 2021年度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라. 2020, 2021年度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마. 의결권 위임승인의 건
 - 바. 감사 인준의 건
 - 사. 회장 선출의 건

2021. 5. 13.
靑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茂 燮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기금 기부계좌 안내

(재) 청심장학회는 청송심문을 빛낼 인재육성을 위해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 학생, 대학(원)생, 예·체능 특기생 유망주 등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발행 청송심씨종보 등에 게재하는 『장학생선발공고』에 따라 국내외 우수한 인재가 많이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청송심씨 후손 뿐만아니라 외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심장학회 운영에 뜻을 함께 해주실 일가분들의 장학기금 기부도 적극 환영합니다. 문의처 02) 2267-7857, 2267-9339

☞ 장학금 기부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2021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잠정연기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대중회 『2021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는 잠정적인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거리두기 개편·방역수칙 완화 등 다중집합 행사를 허용할 때 개최일정을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대중회 이사님을 비롯한 전국 일가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1. 5. 30.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沈 大 平

인터넷 족보(族譜) 수단안내

2020년도에 청송심문의 대동세보(족보)를 일제 정비한 바 있으나, 등재사항 중 탈자, 오자 및 기타 수정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단(收單)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 1. 수단 접수기간 : 2021. 6. 1. ~ 연중 수시
- 2. 제출서류
 -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대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나. 가족관계증명원, 재적등본, 기타 등재관련 증빙서류
- 3. 제출방법
 - 가. 우 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 (찬경회관 5층)
 - 나. 팩 스 : 02-2269-7755,
 - 다. 메 일 : set217@naver.com

- 4. 수단작성 방법
청송심씨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메뉴 22」의 수단작성(견본) 참조
- 5. 수단금 납부
 - 가. 수단금 : 건당 1만원
 - 나. 입금계좌 : 농협 301-2267-7857-81.
예금주 : 청송심씨대중회(족보)
- 6. 유의사항
 - 가. 출생, 혼인, 사망 등 신규사항은 2025년도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 나. 탈자 등재 및 내용수정 시 글자 수가 추가될 경우 5자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회 총무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2-2267-7857, 010-5591-0055

2021. 5. 30.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沈 大 平

청송심씨종보 찬조 계좌 안내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정보공유, 사적지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격월로 발행합니다.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하는 10000명 이상 구독자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보 추가신청 방법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전화번호와 SNS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각종 찬조현황(2021. 3. 16 ~ 2021. 5. 15)

■ 각 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2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3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3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1년3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2월	종보·장학찬조 400만원 2021년4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4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1년3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3월
--------------------------	-------------------------	--------------------------	--------------------------	--------------------------	-----------------------------	--------------------------	--------------------------	-------------------------

순향 헌성금 내역

시조 청송 순향헌성금	악은공종회장 현령공경남종회	30만원 10만원
2세조 함열 순향헌성금	심상후 인수부윤공종회	10만원 30만원
4세조 연천 순향헌성금	좌송지공파입파종회 청수회전복종회	10만원 10만원
4세조배위 청주 순향헌성금	인수부윤공종회 도총제공종회	30만원 20만원
4세조 악은공 청송 헌성금	악은공종회장 냉전문종회장	30만원 20만원
	심두섭 심재진	20만원 20만원
	현령공경남종회 심상정	10만원 10만원
	심광섭 심효은	10만원 10만원

종보찬조

- 200만원 부상공종회(회장 재문)
- 100만원 공숙공종회(회장 총택)
- 50만원 정상공종회(회장 석산)
- 10만원 극택(서울), 연촌(경기), 덕보(포항), 영섭(여주), 강채(전남)
- 5만원 정식(광주), 상달(경기), 성보(부산)
- 3만원 재충(서울)
- 2만원 상협(울산)
- 지로종보찬조 79,540명(8명)

장학찬조

- 2000만원 청송심씨대중회
- 200만원 오산사복시정공파종회(회장 익섭), 부상공종회(회장 재문)
- 100만원 무석(주)에취아이티 대표이사
- 30만원 용인종회(회장 노진), 우정(서울)
- 10만원 문석
- 5만원 재웅(대전)
- 2만원 재희(일산)

임원회비

- 20년 이사회비 5만원
- 부회장 회비 30만원
- 이사회비 5만원
- 주택(경기), 준구(인천), 우관(경기), 광보(충북)
동섭(진주), 상우(광주)
상복(청송), 훈섭(서울), 규선(대전), 일섭(대전), 재웅(대전), 석문(경기), 상국(청송), 종택(청송), 주택(경기), 규일(경기), 상철(부산), 상은(김포), 상대(용인), 상영(김포), 우관(경기), 성택(대구), 재근(김포), 대식(인천), 재구(서울), 창보(서울), 흥섭(서울)